

우리 지역의 기후변화

9

활동 개요

활동 대상	어르신																																					
개발 의도	<p>*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기후변화'라는 말을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또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경험이 적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한 해결책을 알지 못하고 있다.</p> <p>* 어르신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교육을 통해 배운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과 결합한다면 어느 대상보다도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p>																																					
학습 목표	<p>*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p> <p>*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찾을 수 있다.</p> <p>* 녹색 생활로 바꾸기 위한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다.</p>																																					
내용 체계	<table><tr><td>내 용</td><td colspan="5">기후변화 현상</td><td colspan="2">원 인</td><td colspan="2">영 향</td><td colspan="3">대 응</td></tr><tr><td>차 시</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내 용	기후변화 현상					원 인		영 향		대 응			차 시									★			
내 용	기후변화 현상					원 인		영 향		대 응																												
차 시									★																													
활동 차시	* 9차시 / 12차시							소요 시간		2시간																												
활동 장소	* 실내																																					
준 비 물	강 사 용																																					
	학습자용																																					
흐 림 도	도 입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한다.•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발표한다.																																			
			↓																																			
	전 개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느 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찾아 본다.• 일기 속 내용을 녹색 생활로 바꾸기 위한 실천 방법을 찾아 본다.																																			
			↓																																			
	마 무 리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 생활 실천 방법을 발표한다.• '그린송'을 함께 배워서 부른다.																																			



I 활동 내용 I

1. 도입(30분)

(1)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한다.

- * 예시 _ 우리 나라의 평균 기온, 강수량, 계절의 변화 등에 대해 그래프를 통해 알아 본다. 또한 우리 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홍수와 가뭄 현상, 생태계의 변화 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 본다.
- * 유의 사항 _ 생태계의 변화에서 부정적인 측면에 치우쳐서 설명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한다. 예로 강원도에서 사과 재배 지역이 늘어나는 경우, 제주도 앞바다에 참치떼가 출몰하는 경우, 마라도에서 열대 지방 새를 발견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 준비물 _ 읽을 거리 자료

(2) 어느 한 어르신의 일상 생활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찾아 본다.

- * 예시 _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 예를 들어 예전에 비해 강우 빈도와 강우량이 늘어났 다든지 매년 찾아오던 철새가 더 이상 찾아 오지 않는 경우 등 어르신들 중 지역 토착민의 경우 과거와 현재의 변화 과정을 경험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
- * 유의 사항 _ 자기 지역에 나타난 기후변화 현상이 거의 없는 경우 매스컴을 통해 간접 경험한 현상들을 얘기할 수 있다.

2. 전개(60분)

(1) 어느 한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찾아 본다.

- * 예시 _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일상 생활 이야기를 일기 형식으로 제시한다. 또한, 일기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찾아 본다. 예를 들어 목욕탕에서 물을 낭비하는 행동 등을 찾을 수 있다.
건강 관리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 걷기 운동을 다녀온 후 매일 들르는 목욕탕에 갔다. 정기간을 구매하여 싼 값에 목욕을 매일하는데 집에서 목욕할 때는 수도세가 아까워서 물을 아껴 쓰지만, 목욕탕은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곳이라서 물을 아끼지 않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 좋다.
(중간 생략)
- * 유의 사항 _ 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교육적 효과를 위해 과장된 표현도 설정한다. 어르신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 준비물 _ 활동지

(2) 일기 속 내용을 녹색 생활로 바꾸기 위한 실천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한다.

- * 예시 _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녹색 생활로 바꾸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목욕탕에서 물을 낭비하는 행동을 물을 아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꿔 작성한다.
- * 유의 사항 _ 녹색 생활의 실천 방법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여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는다. 작성하는 동안 교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지 확인한다.

4. 마무리(30분)

(1) 녹색 생활 실천 방법을 발표한다.

- * 예시 _ 가정에서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양치컵 사용하기, 변기 수조에 벽돌이나 물이 든 페트병 채워 넣기, 물을 받아서 세수하기 등이 있다. 일기에 나와 있는 부분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다양한 실천 방법을 발표할 수 있다.
- * 유의 사항 _ 어르신의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그린송'을 함께 배워서 부르도록 한다.

- * 예시 _ 그린스타트 그린송 따라 부른다.
- * 유의 사항 _ 노래말은 우리 일상생활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멜로디도 비교적 단순하여 쉽게 익힐 수 있다. 따라서 반복 학습을 통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한다.
- * 준비물 _ 그린송 노래 가사 자료



| 활동 방법 |

❶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한다.

생태계 변화
최근 30년간 봄꽃 개화
시기가 6~8일 당겨짐.



해수면 상승
지난 43년간 약 8cm



폭염 피해 증가
1991~2003년 동안
2,131명 사망 추정



태풍·호우 피해
지난 10년간 72명 인명 피해,
17조 원 피해 발생



어장 변화
고등어, 명태 등 난류성
어종 증가



농작물 재배지 변화
사과의 주산지가
대구에서 영월로 북상



가뭄 심화
최근 10년 109개 시군에서
40만명 제한 급수 발생



산사태 대규모화
지리산 등 폭우로 인하여
매년 1천ha 산사태 발생

출처: 2010 기후변화 이제는 적응입니다. 환경부

❷ 어느 한 어른신의 일상생활 일기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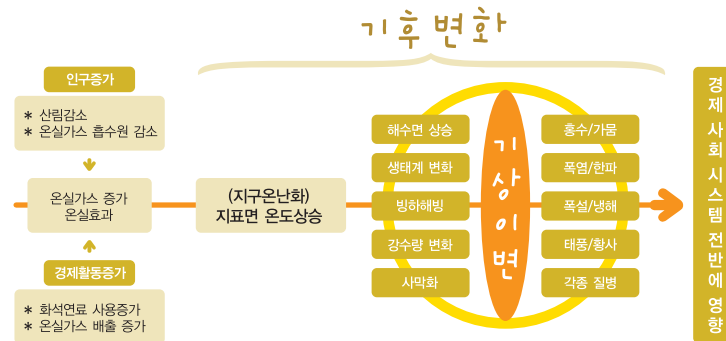
- * 건강 관리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 걷기 운동을 다녀온 후 매일 들르는 목욕탕에 갔다. 정기관을 구매하여 싼 값에 목욕을 매일하는데 집에서 목욕할 때는 수도세가 아까워서 물을 아껴 쓰지만, 목욕탕은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곳이라서 물을 아끼지 않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 좋다. [중간 생략]

❸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 찾아보고, 녹색 생활로 바꾸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Ⅰ 참고 자료 Ⅰ

(1) 기후변화 메커니즘

- * 우리가 흔히 온실가스라고 부르는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의 대표적인 것은 이산화탄소다. 그 외에도 메테인,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 있는데 이들은 난방·산업·교통 등 경제 활동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그리고 이 물질이 지구를 둘러 싸고 있으면 마치 지구가 온실 속에 있는 것처럼 더워지게 되고, 대기 온도가 상승하면 기후 생태계가 변화되어 각종 기상이변과 재해가 빈발하게 되는 것이다.



출처: <http://blog.joinsmsn.com/usr/k/im/kimhman/1009/4ca1884b5d5eb.jpg&imgrefurl>

(2) 기후변화 영향

* 환경 • 이상기후 현상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두고 논란은 있으나 북극 및 남극지대 기온 상승, 빙하 감소, 홍수, 가뭄 및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자연 재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UNFCCC, 2005)

• 빙하 감소

지난 20세기 동안 북극지대 대기온도는 약 5도 증가(이것은 지구표면의 평균 온도 상승폭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인하여 빙하 감소, 극지방 호수의 피빙 기간 감소 등 직접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예로서 북극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산지 빙하는 지난 20세기 동안 감소하고 있는데 스위스의 산지 빙하는 1/3까지 줄어들었다. 북반구 극지방에서는 1960년대 이후로 눈 두께가 10%나 감소하고 있는 한편, 20세기 동안 호수와 강의 연중 피빙 기간이 약 2주나 짧아지고 있다. (UNFCCC, 2005)

• 홍수

지구온난화의 또 다른 영향으로 1966년 및 1997년 라인강 홍수, 1995년 중국 홍수, 1998년 및 2000년 동유럽 홍수, 2000년 모잠비크 및 유럽 홍수, 그리고 2004년 방글라데시 우기홍수(전국토의 60% 침수) 등 전 지구적으로 집중 호우와 폭풍우에 의한 홍수가 빈발하고 있다. (UNFCCC, 2005)

• 가뭄 및 사막화

홍수와 더불어 가뭄 현상도 지구온난화의 중대한 영향 중의 하나인데 특히 아프리카에서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니제르, 차드호 및 세네갈 지역에서는 전체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이 40~60%나 감소하고 있고, 남북서부 아프리카에서는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함으로써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UNFCCC, 2005)



• 해수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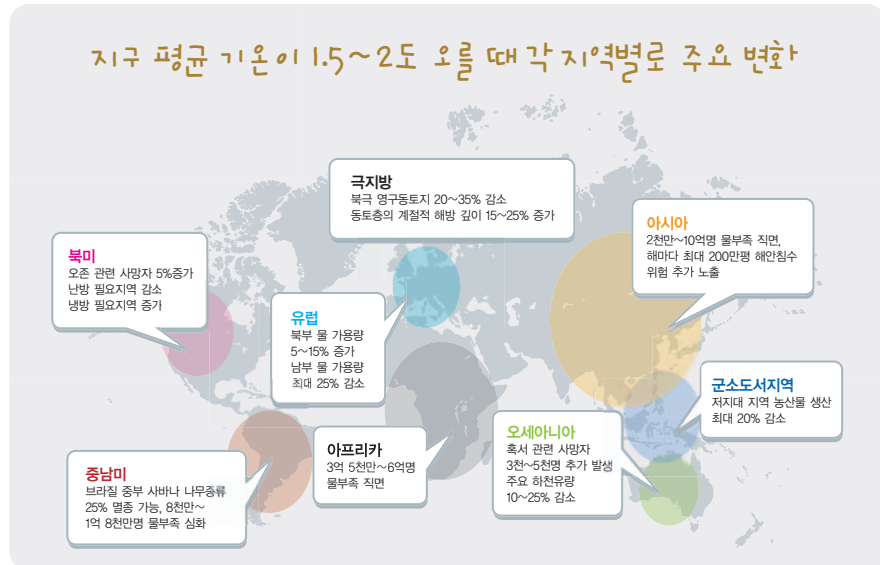
지난 20세기 동안에 해수면은 평균 10~20cm 높아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이 예상된다. 만약 이같이 해수면이 크게 상승할 경우 방글라데시와 같이 인구가 해변에 밀집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바닷물 범람에 의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몰디브와 같은 작은 섬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은 수십억 인구가 사용하는 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구의 이주를 유발시킬 것이다. (UNFCCC, 2005)

• 생태계 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나무의 조기 개화, 새들의 조기 산란, 곤충 식물 및 동물 서식지 변화, 연안 지역의 백화 현상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자연 생태계도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 건강

- 물론 기후변화가 지역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일부 지역에서 온도의 증가로 겨울철 추위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낮추게 한다거나,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 등의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유엔을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건강에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 즉 맑은 공기, 깨끗한 식수, 충분한 식량, 그리고 안전한 거처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한겨레 신문 2007. 4

- 기후변화로 혜택을 받는 일부 추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적응 능력이 낮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양실조와 관련 질병이 증가하는 등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열, 홍수, 태풍, 산불, 가뭄과 관련된 상해 및 사망률이 증가할 것이며, 수인성 질병, 오존층 고갈도로 인한 심폐기관 질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염성 병해충의 분포가 변하고 말라리아의 확대와 축소 등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기후변화와 산림' 산림청, UNEP/WHO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amyscienceroom.cafe>

정부간 기후변화특 11일 부산회의... 지구온난화 2100년 한반도는...

2010. 10. 08 / 09:34

식탁 쌀밥 사라지고... 거리엔 야자수 일색... 9월까지도 에어컨... 설까치는 옛 이야기

지구가 뜨겁다(hot). 온난화로 점차 기온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도 변화무쌍하다. 북구가 와인의 집산지라 되고 '조스'가 심심찮게 우리를 기습한다. 긴 여름에 간절기 의류는 사라지고, 가로수는 야자수 나무로 바뀐다. 올 들어 부쩍 달라진 날씨에 많은 국민은 당황해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변화는 실로 엄청나다. 흥미를 느끼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기존의 자연 질서에 비춰 보면 인간이 빚어낸 재앙에 가깝다. 뚜렷한 4계절을 자랑하는 한반도에 봄 가을이 점차 줄고 수자원과 농업 생산성도 줄어든다.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수십조~수백조원의 손실도 예상된다. 전문가의 진단 앞에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은 국운 개척의 또 다른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헤럴드경제는 오는 11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CPP) 부산 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1961~1990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1.4도, 하지만 IPCC 3차보고서(2001)에 따르면 2100년에는 5.8도의 지구 기온 상승이 예상된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기상청이 2000~2009년 전국 60개 지점에서 관측한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연 평균기온은 12.8도로 평년값(1971~2000년)인 12.3도에 비해 0.5도 상승했다. 온난화가 침투한 우리 생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설날에도 까치 울음 들을 수 없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라는 노래 가사는 십수년 뒤 바뀔지 모르겠다.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에 머무는 까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1998~2009년 11년 동안 까치의 번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 강수량 등의 기후변화로 부화나 산란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까치의 빈 자리는 아열대 조류가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아열대 조류인 검은슴새가 지난 7월께 제주도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검은슴새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열대지방과 대만, 하와이 등 아열대지방 먼 바다에서 주로 서식해왔다. 지난 6월에는 마라도 근처에서 아열대 조류 쇠부리슴새 500마리가 관찰되기도 했다. 이제는 까치 대신 검은슴새 등 아열대 조류의 울음 소리를 들으며 새해를 맞이할지 모른다.

밥상에서 쌀밥이 사라진다.

농업과학기술원은 지구온난화로 평년보다 기온이 2도 상승하면 벼 수확량이 평년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100년까지 세계 평균 기온이 4도 이상 상승할 경우 벼 수확량은 약 20%까지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쌀밥이 사라질 공산이 커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지역별·작물별 재배 적지를 재편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온난화는 쌀뿐만이 아니라 밀·옥수수 등 대부분의 곡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우리가 앞선다. 지구정책연구소장 레스터브라운의 저서 ‘플랜B 3.0’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몽골의 경우 지난 20년간 곡물 생산이 절반으로 줄었다. 밀·옥수수도 마찬가지다. 이미 7~8년 전부터 곡물 수요가 생산량을 앞서고 있고 재고량은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다.

가로수엔 소나무 대신 야자수

우리 나라 산림의 대표 수종인 소나무가 그 지위를 내려놓는 날도 머지않은 듯 보인다. 온난화로 인해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소나무가 말라 죽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소나무와 같은 상록수는 겨울에도 잎의 기공을 통해 물을 기체 상태로 내뿜는 증산 작용을 하는 터라 수분 손실이 큰 편. 게다가 온난화로 인해 나무가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해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다는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아열대성 병해충이 예전보다 따뜻해진 겨울 날씨를 버틸 수 있게 돼서다. 이제는 가로수를 소나무 대신 야자수로 대체할지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백령도 오징어’ 탓에 서해 연안에 백상아리 출몰

난류 어종인 오징어는 따뜻한 동해바다에 주로 서식했다. 하지만 난류 세력이 서해안 일대까지 확장되면서 이제는 울릉도 오징어가 아닌 백령도 오징어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한반도 해상의 이상저온 현상으로 전국 오징어 생산량이 평년 기준 87% 수준에 그쳤지만 오징어는 동해에서만 잡힌다는 명제는 깨진 지 오래. 지난해 여름 서해에서 백상아리가 나타난 것도 오징어와 연관이 있다. 오징어가 서해로 이동하자 오징어를 먹이로 하는 상괭이(돌고래 종류)가 이동했고, 상괭이를 먹이로 하는 백상아리도 서해에 출몰하게 된 것. 국립수산물과학원은 봄철 난류세력이 연안으로 확장하면서 수온이 15도 이상으로 높고 수심이 얕은 남해와 서해안 연안 일대에 상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생태탕은 없어서 못 먹는 귀한 음식

뜨끈한 국물의 생태탕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 하지만 최근 한반도 주변 해상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서 생태탕에 들어가는 명태가 귀해졌다.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따르면 1968~2008년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평균 수온은 1.31도 높아졌고, 그 중에서도 동해가 1.39도로 가장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상에 주로 거주하던 명태는 수온이 따뜻해지자 북쪽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1987년 약 3만 3700t 잡히던 명태가 지난해에는 고작 35t에 불과했다. 명태 축제가 유명한 강원도 고성군은 행사를 위해 일본 홋카이도 등에서 명태를 수입해 오는 현실. 한국산 명태는 값비싼 가격에 팔려 나가고 있다.

선풍기는 9월까지 팔리고, 간절기 옷은 자취를 감춘다.

절기로는 가을인데 여름 날씨가 계속된다.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활동이 활발해져 비도 자주 내리게 된다. 올해 여름처럼 불볕 더위가 이어지고 가을에도 장마가 지는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이야기다. 그 덕에 여름 복합성 기능 상품은 꾸준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제습 기능이 있는 선풍기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휴대용 우산도 불티나게 팔렸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 따르면 2008년 제습기 판매량은 5000대에 그친 반면 올해 9월까지 판매량은 1만 4,000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우산 겸용 양산의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반바지 등 여름철 의류도 9월까지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판매됐다. 하지만 여름에서 본격적인 가을로 넘어가기 전 간절기용 상품을 찾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 / sjp10@heraldm.com

그린송

함께 노래해요

#1

일상에서 오는 녹색생활의 지혜 가정에서부터 함께 실천해봐요
냉난방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친환경 제품과 장바구니 이용해요
직장에서도 노타이와 쿨맵시 대중교통 이용하고
쓰레기 줄이는 지혜로운 식당 일회용품도 자제 해봐요
GreengreenLife! 우리 일상 속에서
GreengreenLife! 이제 실천해봐요
작은 일이지만 큰 힘이 되어 돌아오죠
GreengreenLife! 우리 가족들부터
GreengreenLife! 우리 친구들부터 작은 일이라도
이제 모두 함께 시작

#2

교복과 교과서 깨끗이 물려주는 내가 우리반에서 녹색생활지킴이
함께 가꿔가는 그린캠퍼스 이면지 다시쓰고 개인컵 사용하죠
플러그를 뽑아요 버릴 음식 줄여요 분리수거도 생활화해요
GreengreenLife! 우리 일상 속에서
GreengreenLife! 이제 실천해봐요
작은 일이지만 큰 힘이되어 돌아오죠
GreengreenLife! 우리 가족들부터
GreengreenLife! 우리 친구들부터 작은 일이라도
이제 모두 함께 시작해
GreengreenLife! 우리 일상속에서
GreengreenLife! 모두 실천해봐요
지혜로운 생활 작은 일부터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해



그린 송
(녹색 생활의 지혜)



본 행사는 녹색생활 실천 확산에 앞장서는 취지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실내온도를 18℃~20℃로 유지할 것이며, 사용된 현수막과 배너는 아름다운 가게 기부를 통해 재활용될 계획입니다. *본 리플렛은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출처: www.greenstart.kr (메인 화면에서 로고송을 들을 수 있음)

날짜 () 이름 ()

★ 어느 한 어른신의 일상생활 ★

오늘은 건강 관리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 걷기 운동을 다녀온 후 매일 들르는 목욕탕에 갔다. 정기간을 구매하여 싼 값에 목욕을 매일하는데 집에서 목욕할 때는 수도세가 아까워서 물을 아껴 쓰지만, 목욕탕은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곳이라서 물을 아끼지 않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 좋다. 목욕탕에 앉아 있을 때 옆 자리에 친구 김노인이 앉아 있지 않은가! 김노인과 반갑게 인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김노인이 목욕 용품 세트를 보여주며 며느리가 사준 해외 유명메이커라며 자랑을 한다. 매일 목욕탕에 비치된 비누를 사용하던 나는 김노인이 한 번 써 보라는 권유에 바다사위를 등백 찢어 거품을 많이 내 사위를 했다. 해외 유명 메이커라 그런지 역시 살이 매끈해진 것 같았다. 김노인과 목욕을 마치고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 아직 낮이 되지 않았는데도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날씨가 무척 더웠다. 다행히 식당 안은 에어컨 냉기로 시원했다. 에어컨 온도를 살펴보니 18℃였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입맛이 없어서 밥을 반 이상 남겼다. 밥을 먹고 집에 들어 오는 길에 간식거리로 과일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 여러 과일이 진열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과일 가격이 너무 비싸 비교적 저렴한 바나나를 구입했다. 바나나의 원산지지를 보니 멀리 해외에서 들어온 것이었다. 또 손자가 과자를 좋아해 손자 건강을 생각해서 유기농 과자를 구입했다. 구입한 바나나와 과자를 비닐 봉지에 켜겼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곤해서 잠을 청했다. 나는 항상 자기 위한 준비로 TV를 켜 놓는다. TV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켜 놓고 자면 더 잠이 잘 오는 것 같아 습관처럼 TV를 켜고 잔다.

| 일상생활 이야기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찾아 보세요. |

| 일상생활을 녹색 생활로 바꾸기 위한 실천 방법을 작성해 보세요. |